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3년 8월 생산은 전월대비 2.2% 증가(전년동월대비 1.5%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2.2%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1.5%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의복·모피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6%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2023년 8월 소비는 전월대비 0.3%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6%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8% 감소).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3.1%)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6%)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3.6%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4.9%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4.4%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7.3%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8월	7월p	8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0.7	-0.8(-1.5)	2.2(1.5)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2.3	-2.0(-8.1)	5.5(-0.5)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2.2	-2.1(-8.3)	5.6(-0.6)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2.6	0.8(10.5)	4.4(12.3)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0.6	0.3(1.7)	0.3(1.7)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3.0	-3.3(-1.7)	-0.3(-4.8)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8.9	-8.9(-11.2)	3.6(-14.9)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3	1.0(3.4)	0.6(3.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9월, 2023년 8월, 2023년 9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3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1.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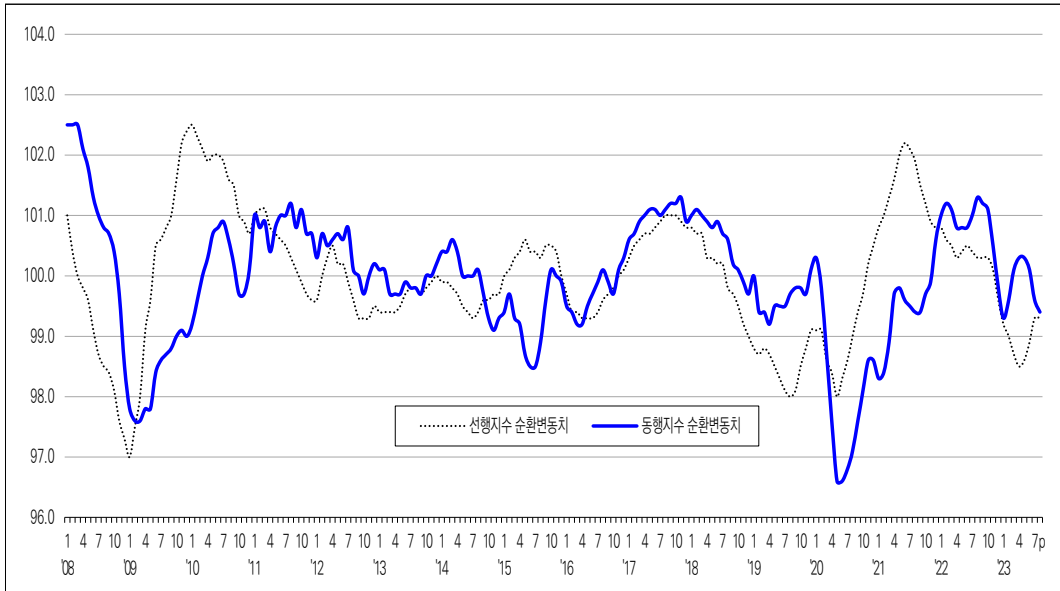
○ 2023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100)로 전월대비 0.6%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6%), 주택·수도·전기·연료(1.3%), 교통(1.3%), 통신(0.2%), 가정용품·가사서비스(0.1%)는 상승, 교육, 기타 상품·서비스, 의류·신발은 변동 없으며, 주류·담배(-0.1%), 보건(-0.1%), 오락·문화(-0.2%), 음식·숙박(-0.2%)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9%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1.2% 상승하여 전월대비 1.1% 상승함.

◆ 2023년 8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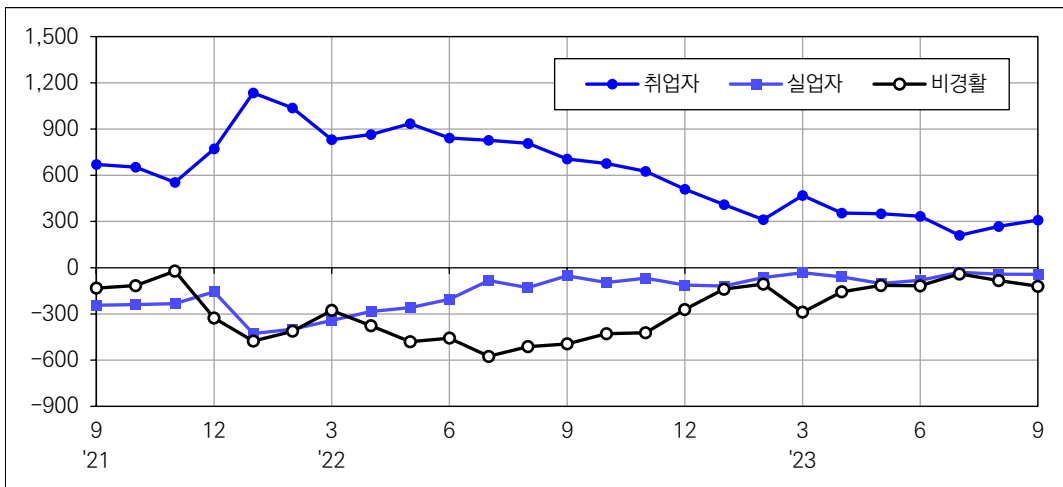
●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2개월간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 2023년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0만 9천 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전월 대비) 2만 8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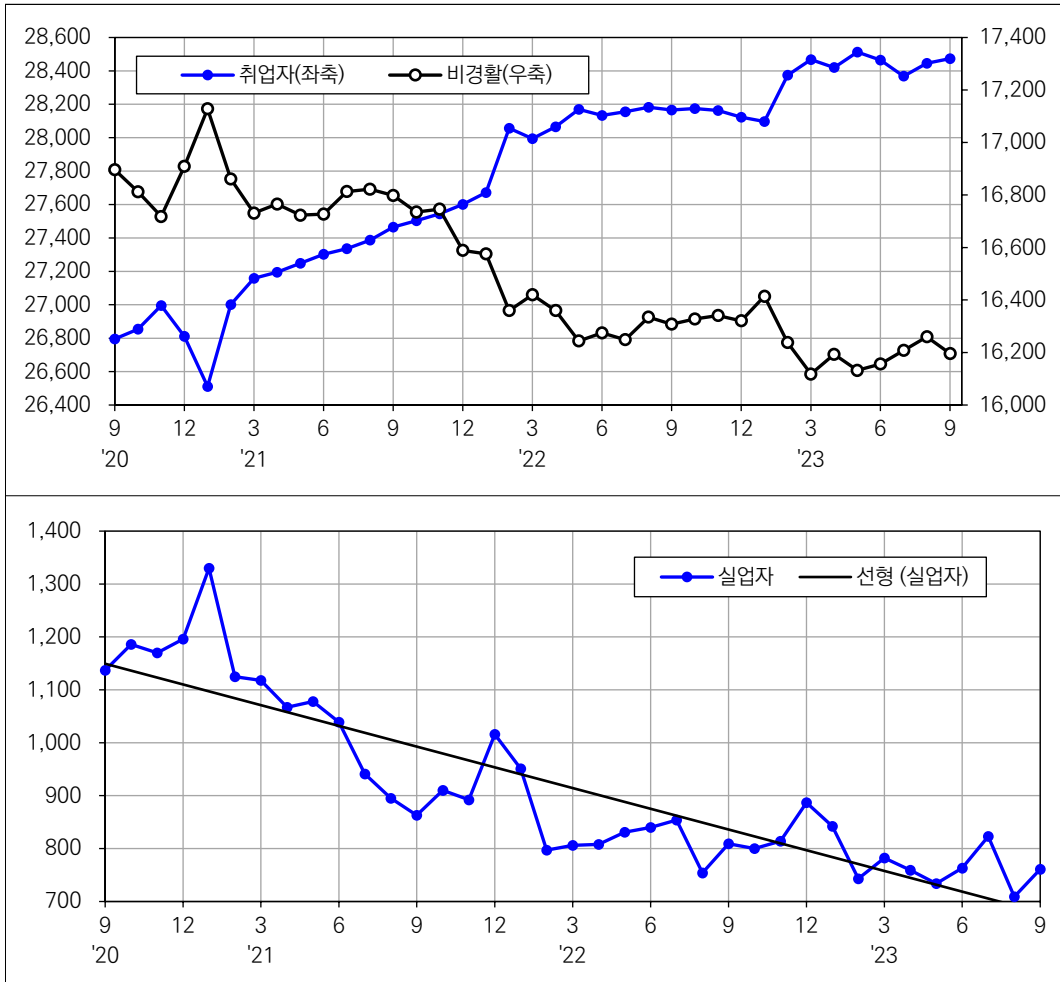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9월 제조업은 기저 영향으로 감소폭이 커졌으나 종합적으로 완만한 고용 감소세가 지속됨. 서비스업 취업자는 조사 기간 내 추석 대목 유무의 차이로 도소매, 운수창고업 일용직 고용이 늘어났으며, 음식숙박업은 전년 기저 영향으로 점차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연령별) 전월대비 30대, 60대 취업자가 증가되었으며, 여성 위주의 30대 고용 증가가 지속됨.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9월 실업자는 4만 2천 명 감소, 전월 감소폭과 비슷함(8월 -4만 1천 명).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9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 명 감소하여 전월 감소폭과 비슷함(8월 -8만 2천 명). 전월대비 3만 8천 명 감소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9월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30대와 50대 취업자는 증가폭이 둔화됨.

- 60대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5만 4천 명 증가했으며, 여성 고령층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취업률이 증가 중이지만, 60대 후반 남성은 취업률이 감소 중임. 여성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남성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고령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 위주인 운수창고, 건설, 사업시설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 30대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5만 6천 명 증가했으며, 여성 취업자는 (7만 7천 명)으로, 30대 초반 여성 취업자(6만 6천 명)가 크게 증가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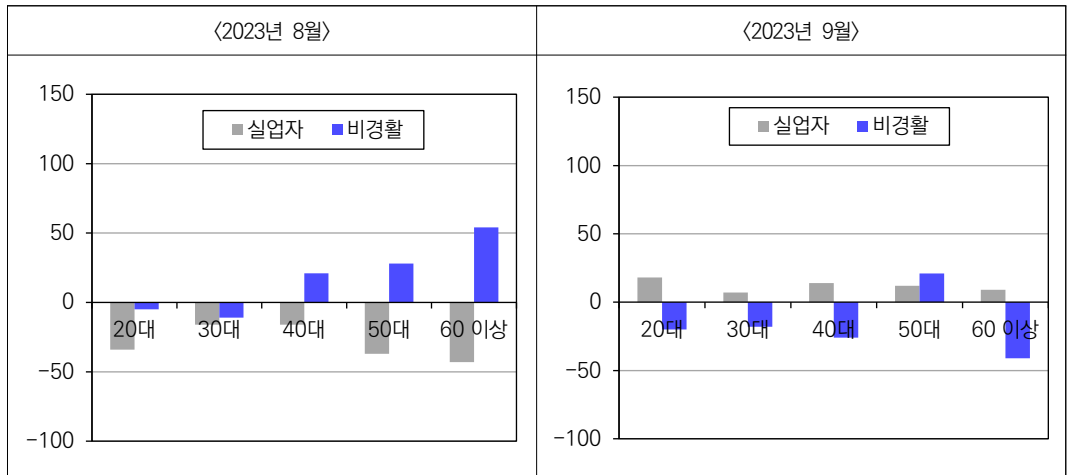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10	-13	-3	(10)	-128	-91	-86	(4)	51	64	56	(-8)
실업자	-11	0	1	(0)	-33	-44	-45	(-2)	-20	-13	-11	(2)
비경활	43	33	20	(-13)	-31	-58	-61	(-2)	-100	-115	-104	(10)
실업률	-4.5	0.2	0.4	(0.2)	-0.5	-0.9	-0.9	(0.0)	-0.3	-0.3	-0.2	(0.1)
고용률	-0.5	-0.6	-0.2	(0.4)	-0.1	0.4	0.5	(0.1)	1.6	1.7	1.5	(-0.2)
	40대				50대				60세 이상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61	-69	-58	(12)	61	73	45	(-27)	298	304	354	(50)
실업자	-8	-6	-2	(5)	18	-1	0	(1)	25	23	15	(-9)
비경활	-54	-52	-72	(-20)	-80	-65	-30	(35)	183	174	128	(-47)
실업률	-0.1	-0.1	-0.1	(0.0)	0.3	-0.1	0.0	(0.1)	0.3	0.3	0.2	(-0.1)
고용률	0.5	0.4	0.6	(0.2)	0.8	0.8	0.4	(-0.4)	0.4	0.5	0.9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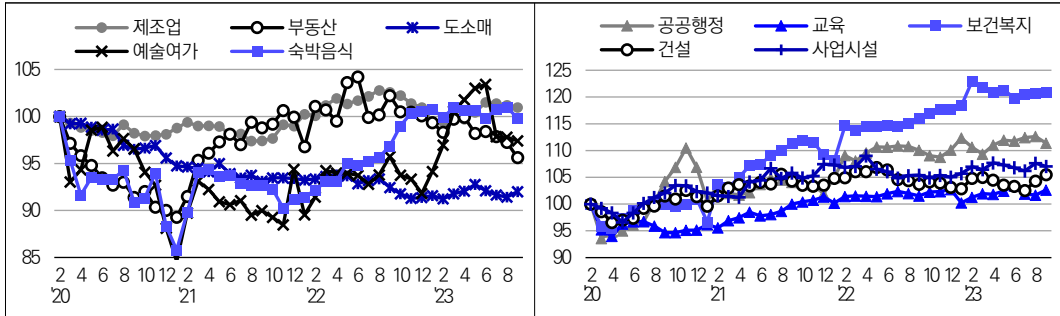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 공공행정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함.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교육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 부동산업 및 예술여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42	-19	-3	-21	24	8	11	0.7
광업	0	2	1	-1	0	1	0	0.0
제조업	-35	-69	-72	-5	-8	-10	-24	-0.5
전기·가스·증기	4	10	11	2	6	5	13	15.4
수도·원료재생	1	3	4	6	2	-2	6	4.3
건설업	-43	-1	36	-16	36	24	44	2.1
도매 및 소매업	-55	-69	-17	-16	-8	21	-3	-0.1
운수 및 창고업	-26	-16	2	1	-1	0	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25	121	66	21	6	-28	-1	0.0
정보통신업	48	45	47	-4	-7	5	-6	-0.6
금융 및 보험업	-7	-4	11	1	1	-1	1	0.1
부동산업	-11	-16	-36	-3	-3	-9	-15	-2.8
전문·과학·기술	62	57	67	-7	-14	7	-14	-1.0
사업시설관리지원	17	31	22	-8	19	-8	3	0.2
공공행정·사회보장	18	20	15	7	2	-14	-4	-0.3
교육서비스업	-8	-6	20	-29	-4	18	-14	-0.7
보건 및 사회복지	145	138	118	15	7	3	25	0.9
예술·스포츠·여가	26	21	9	-29	0	-2	-31	-5.8
협회·단체·수리·기타	4	32	15	4	20	-5	19	1.7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3	-10	-8	-4	-2	5	0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23년 9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로 전환함.

- 상용직은 건설업, 도소매,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 사업관리지원에서 증가하였고, 정보통신에서 감소함.
- 임시직은 음식숙박, 운수창고, 정보통신에서 감소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상용직	513	393	435	36	-90	41
임시직	-144	-14	-31	-3	117	-20
일용직	-188	-149	-67	-92	51	3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48	59	39	1	1	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44	34	-20	-13	10	-59
무급가족종사자	-62	-55	-48	-17	-1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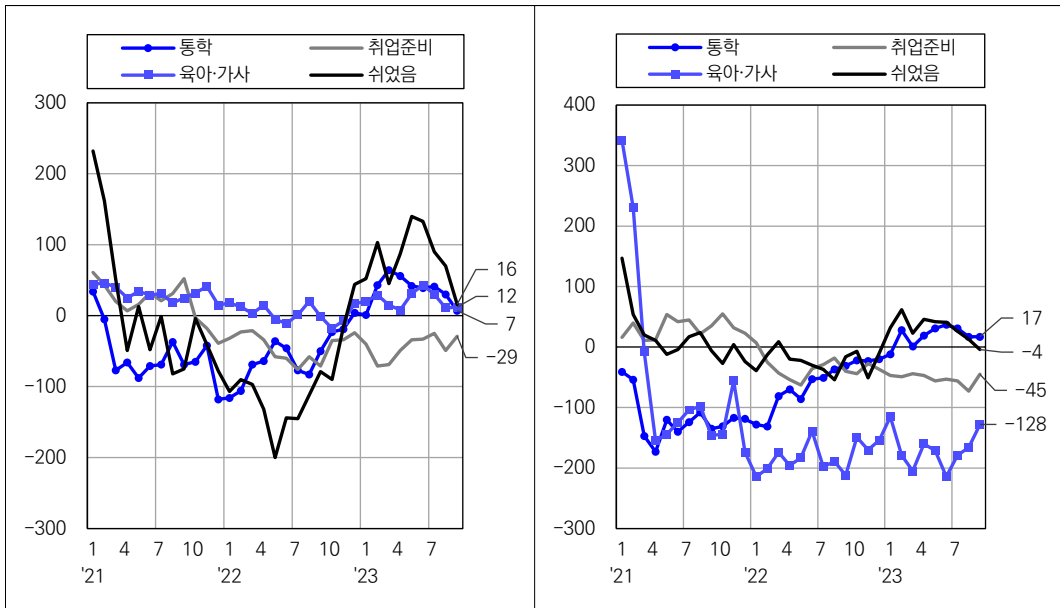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농림어업	1	6	4	-22	-8	-7	-13	-9	2	-10	-6	2	28	-25	5
제조업	-32	-71	-87	1	-6	1	-27	-23	-10	17	25	19	4	-2	10
건설업	38	52	73	-28	-15	-4	-91	-73	-46	10	1	3	29	3	11
도소매	51	30	68	-49	-40	-66	-10	-9	9	-9	8	-16	-25	-12	-11
운수창고	7	2	22	-20	2	-3	-13	-18	-12	7	-20	8	-5	-3	-11
음식숙박	76	51	51	48	63	23	-9	-14	-11	18	9	17	2	-5	-6
정보통신	25	19	4	16	11	-2	-3	2	3	7	26	3	5	0	15
금융보험	-6	1	3	-8	-11	-13	-2	-3	-2	0	3	2	8	0	11
부동산	4	1	-5	-11	-9	0	0	1	0	2	2	-1	-7	-1	-17
전문과학기술	49	40	65	4	8	-5	-2	-1	0	18	2	14	-8	2	-15
사업관리지원	9	11	26	-12	0	12	16	17	9	1	17	-1	10	-4	-1
공공행정	19	12	2	2	10	-11	-4	-2	0	-	-	-	-	-	-
교육서비스	27	27	36	-39	-30	14	4	-4	-5	-5	3	1	12	-4	4
보건복지	179	130	112	-20	15	10	-5	3	-1	-11	-2	-12	2	0	6
예술스포츠	21	15	9	17	1	10	-3	11	5	2	-16	4	-7	1	-19
협회단체	26	40	21	-1	15	10	-17	-20	-5	2	9	-5	-7	-4	-4
가구 내 고용	-1	1	-	-8	-10	-14	-6	-5	0	-	-	-	3	0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9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2만 명으로 전월 감소폭과 비슷함(8월 -8만 2천 명).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5만 9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감소함. 여성은 -17만 9천 명으로 '쉬었음'(-4천 명) 사유에서 감소세로 전환함.

[그림 4]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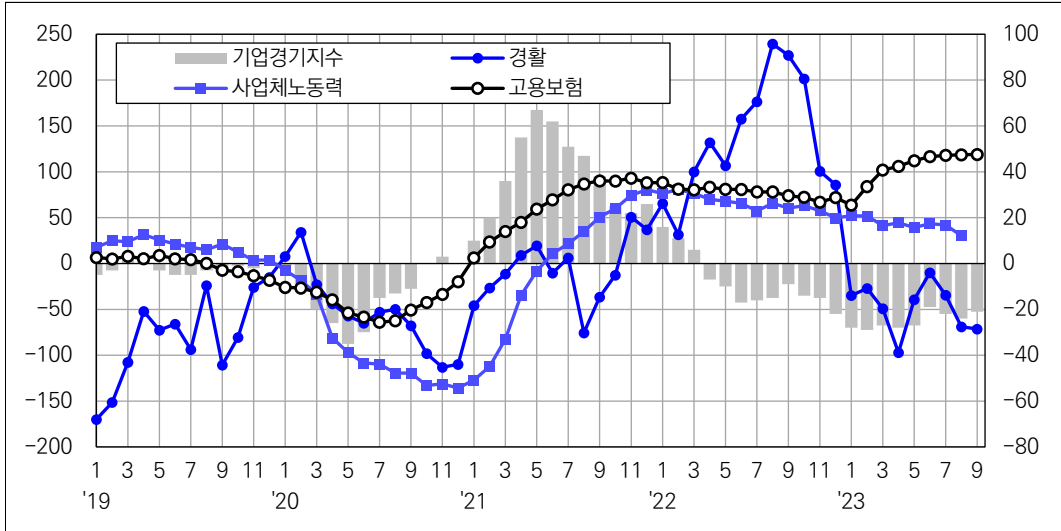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유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 2023년 9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 2천 명 감소하여 전월과 비슷한 감소세를 보임(8월 -6만 9천 명).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전년동월대비 1천 명 감소하였음.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줄어들음.
 -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3천 명 감소함.

[그림 5]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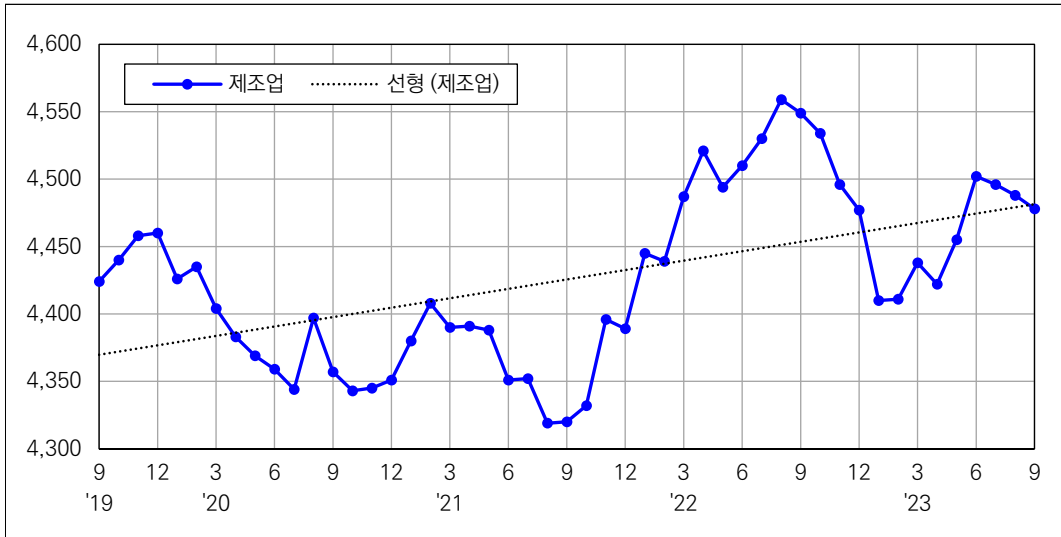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6]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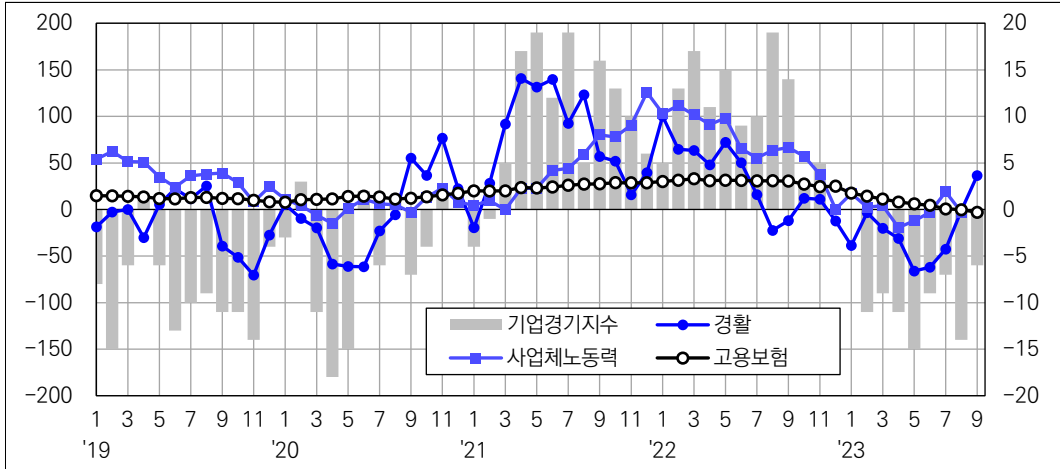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9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로 전환함.
-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그림 7]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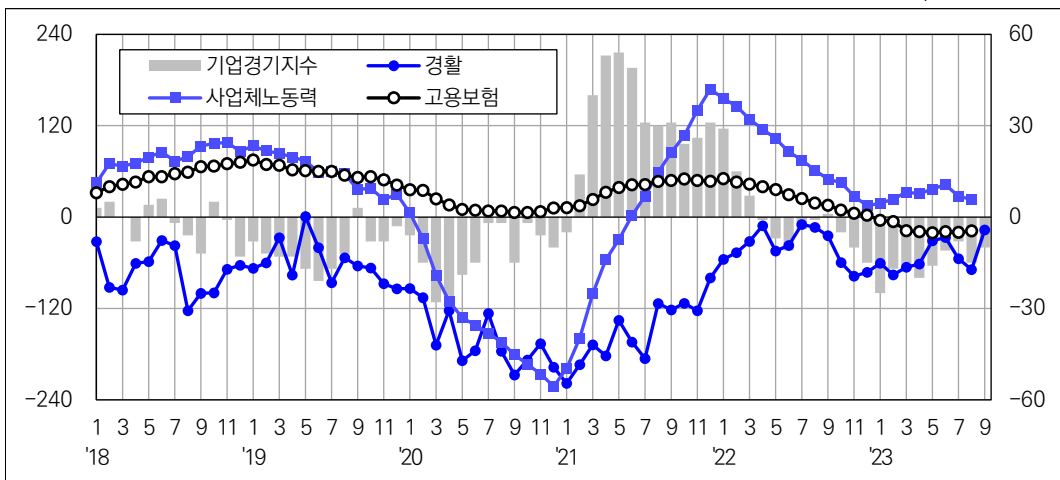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9월 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추석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 (도소매) 도매업은 기저 영향으로 당분간 회복 추세를 보이며, 소매업은 추석 영향으로 증가함.
- (숙박 및 음식점업) 전년동월대비 취업 증가폭이 둔화됨.

[그림 8]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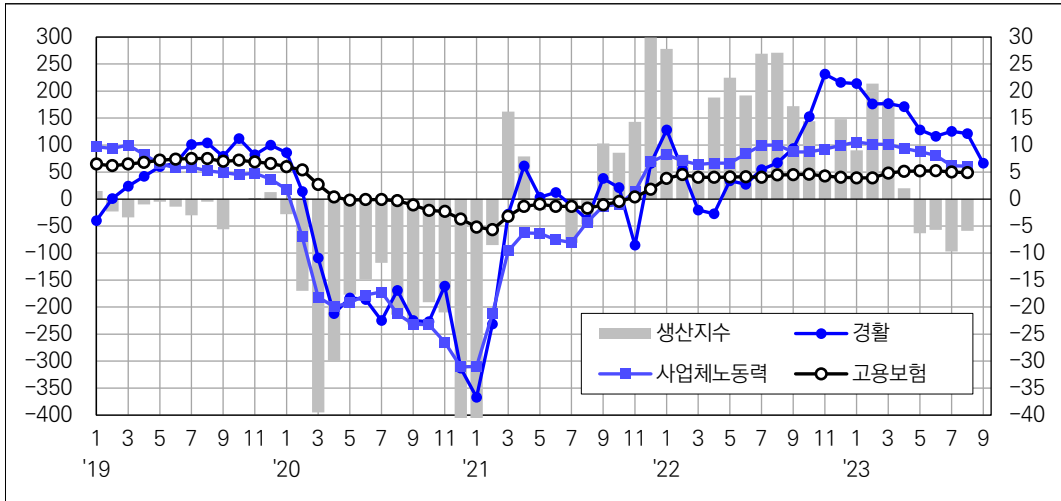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정보통신업)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업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직 증가 비중이 높아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월과 비슷한 취업자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0대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30~40대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함.

[그림 9]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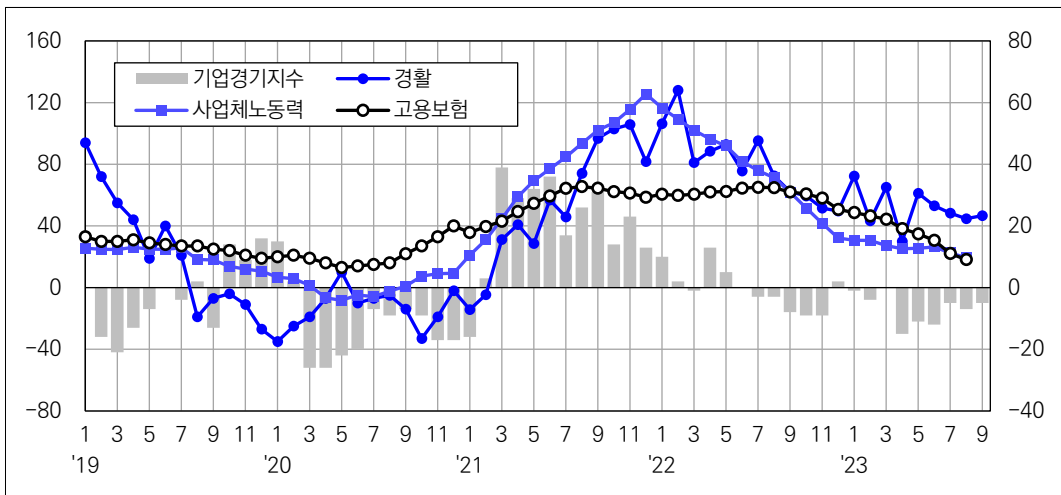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0]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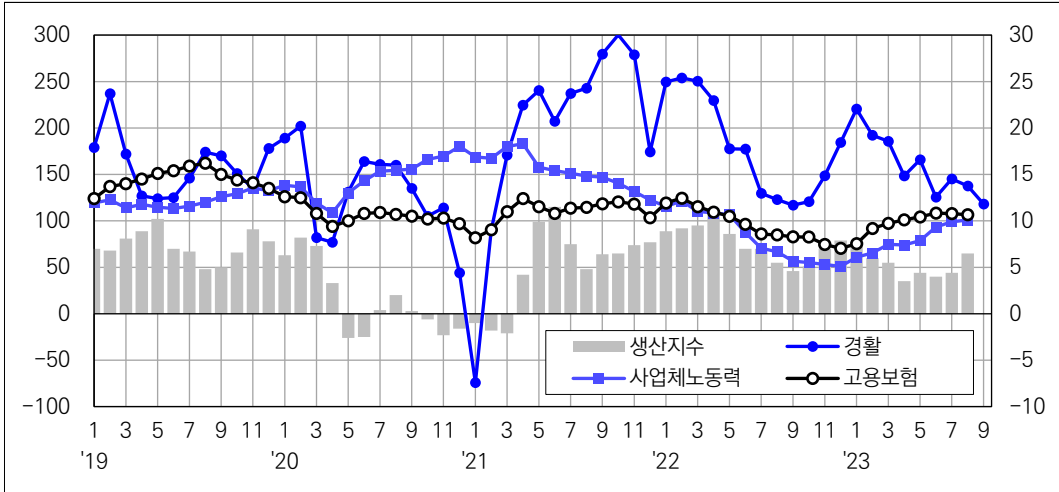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황지영,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3년 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2023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 3천 원(1.1%)임.
 - 2023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21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74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정액급여증가폭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큼.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함.
 - 2023년 1~7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1.5%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0=100.0)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7월	7월	1~7월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3,857 (5.5)	3,919 (4.0)	3,941 (2.2)	3,963 (1.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077 (5.8)	4,153 (4.3)	4,185 (2.6)	4,213 (1.4)
	정액급여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293 (4.2)	3,334 (4.4)	3,424 (4.0)	3,451 (3.5)
	초과급여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16 (6.0)	215 (6.8)	221 (2.3)	221 (2.7)
	특별급여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568 (16.2)	604 (2.4)	540 (-5.0)	541 (-10.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38 (2.8)	1,759 (2.7)	1,737 (-0.1)	1,745 (-0.8)	
소비자물가지수	105.1 (0.4)	105.7 (0.5)	104.0 (2.5)	109.3 (5.1)	106.8 (4.9)	108.7 (6.3)	110.8 (3.7)	111.2 (2.3)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0.6	-2.2	-1.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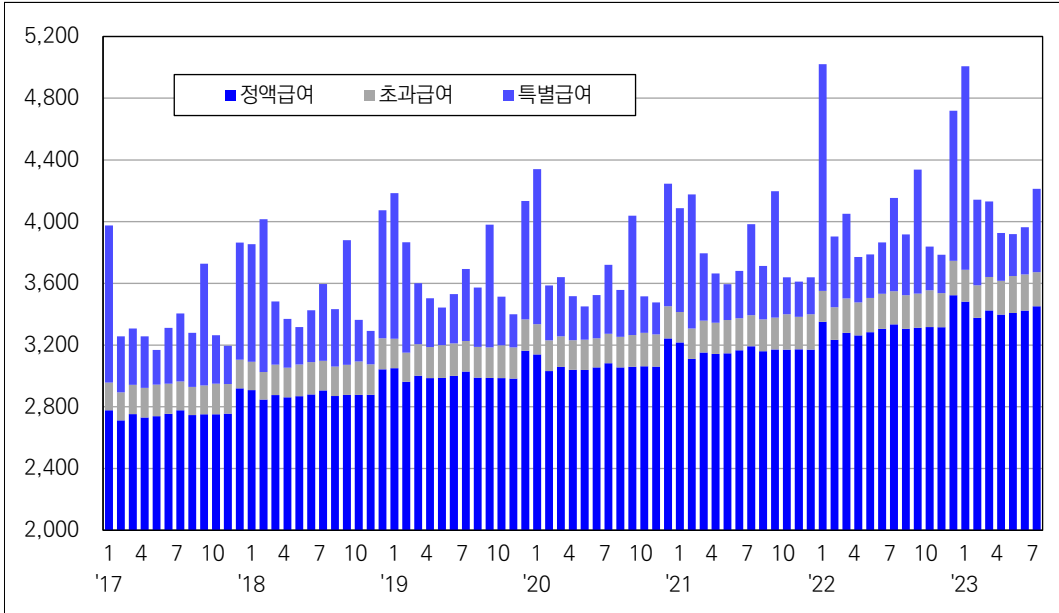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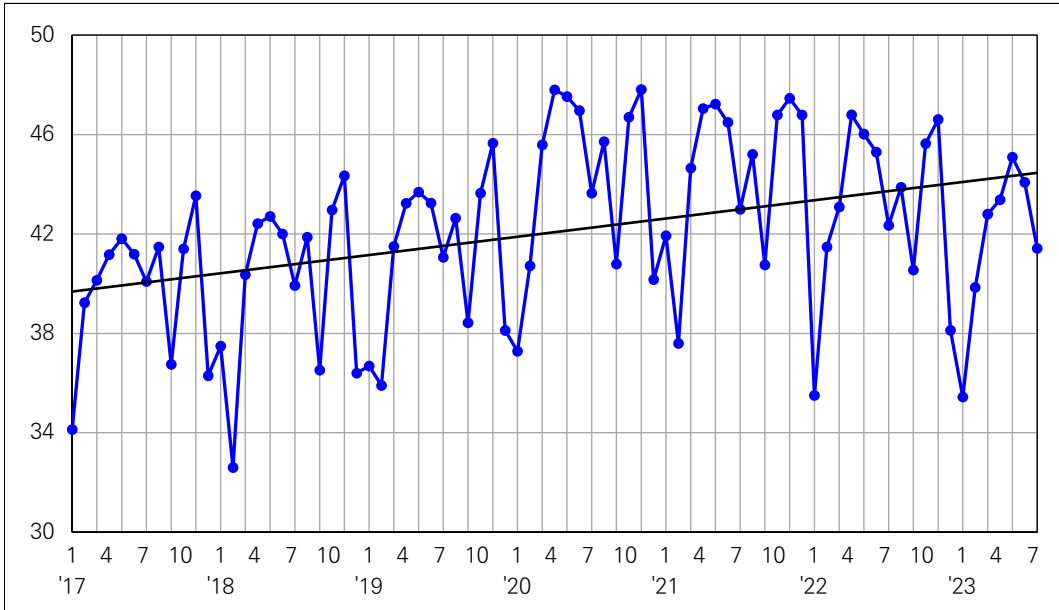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7월 대규모 사업체 전년동월대비 임금 감소

- 2023년 7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55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8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함.²⁾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특별급여 감소(-18.5%) 영향이 큼. 부동산업(-7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5.1%), 운수 및 창고업(-23.4%) 순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였고, 제조업의 특별급여도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16.8%)도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주로 운수 및 창고업(-74.0%)과 제조업(-24.3%)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임.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둔화됨.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3.7%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p), 금융 및 보험업(-2.2%p), 제조업(-1.1%p) 중심으로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7월	7월	1~7월	7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3.8)	3,462(4.4)	3,427(4.5)	3,485(4.0)	3,499(2.1)	3,550(1.9)
	상용임금총액	3,510(3.9)	3,675(4.7)	3,633(4.8)	3,707(4.3)	3,726(2.6)	3,788(2.2)
	정액급여	3,012(3.4)	3,139(4.2)	3,117(4.1)	3,160(4.4)	3,233(3.7)	3,255(3.0)
	초과급여	176(2.9)	186(5.7)	183(6.0)	182(6.3)	183(-0.4)	183(0.7)
	특별급여	322(10.4)	350(8.7)	332(10.6)	365(3.2)	310(-6.6)	351(-4.0)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3.4)	1,711(2.4)	1,702(2.4)	1,698(2.1)	1,703(0.1)	1,710(0.7)
대규모	소 계	5,582(6.5)	5,922(6.1)	6,026(8.3)	6,108(3.6)	6,112(1.4)	5,983(-2.1)
	상용임금총액	5,687(6.6)	6,049(6.4)	6,152(8.6)	6,229(3.8)	6,255(1.7)	6,129(-1.6)
	정액급여	3,973(3.3)	4,155(4.6)	4,113(4.3)	4,145(4.6)	4,282(4.1)	4,339(4.7)
	초과급여	357(5.1)	377(5.5)	371(5.8)	371(7.8)	396(6.8)	393(5.9)
	특별급여	1,357(18.1)	1,516(11.8)	1,669(21.8)	1,714(1.3)	1,576(-5.5)	1,397(-18.5)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9.1)	2,321(4.8)	2,329(5.9)	2,729(5.5)	2,258(-3.0)	2,271(-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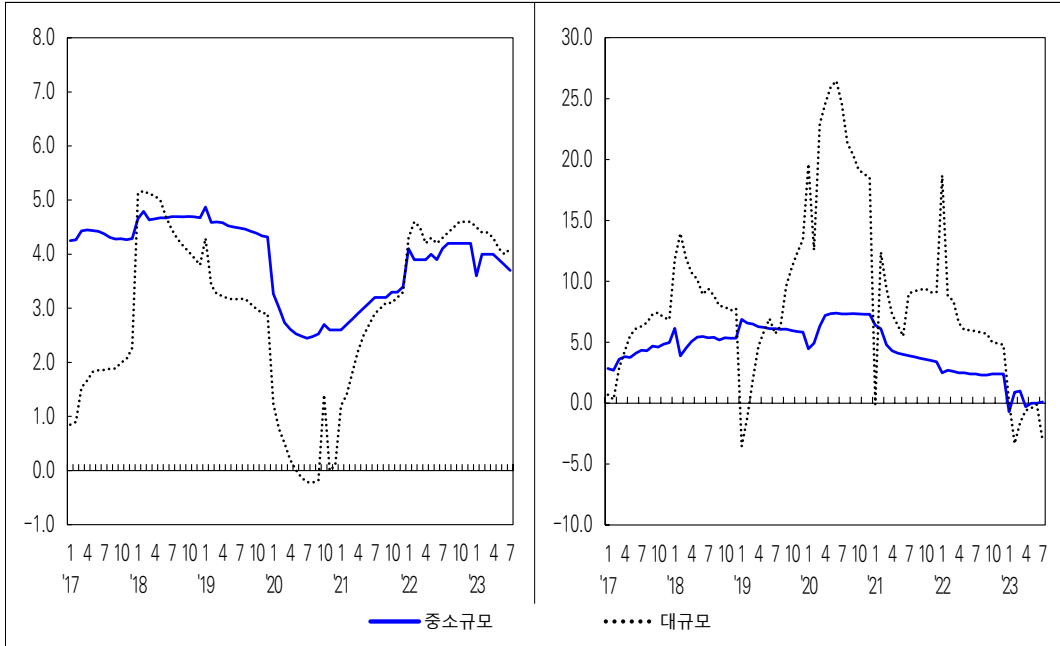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

- 2023년 7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5%)이고,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6.8%), 정보통신업(4.3%) 순으로 나타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1%)의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운수 및 창고업(-1.4%), 부동산업(-0.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1%)도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함.
- 2023년 7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73만 5천 원)이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0만 2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3,689 (4.6)	3,869 (4.9)	3,857 (5.5)	3,919 (4.0)	3,941 (2.2)	3,963 (1.1)
광업	4,415 (2.1)	4,608 (4.4)	4,622 (4.5)	5,361 (2.7)	4,639 (0.4)	5,390 (0.5)
제조업	4,239 (6.2)	4,484 (5.8)	4,496 (7.3)	4,538 (3.5)	4,629 (3.0)	4,635 (2.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 (0.3)	6,907 (2.3)	6,641 (2.5)	6,475 (4.7)	7,398(11.4)	7,735(19.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 (5.3)	4,168 (1.8)	4,040 (2.4)	4,033 (3.7)	4,176 (3.4)	4,146 (2.8)
건설업	3,106 (2.4)	3,229 (4.0)	3,202 (4.2)	3,206 (4.4)	3,330 (4.0)	3,332 (3.9)
도매 및 소매업	3,551 (3.7)	3,773 (6.3)	3,717 (5.7)	3,815 (6.1)	3,876 (4.3)	3,913 (2.6)
운수 및 창고업	3,795 (7.5)	4,040 (6.5)	3,927 (5.8)	4,515 (5.4)	4,131 (5.2)	4,452 (-1.4)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1.4)	2,004 (5.2)	1,984 (5.4)	2,039 (7.2)	2,075 (4.6)	2,102 (3.1)
정보통신업	4,796 (4.0)	4,999 (4.2)	5,041 (4.0)	4,841 (3.7)	5,135 (1.9)	5,047 (4.3)
금융 및 보험업	6,963 (6.7)	7,324 (5.2)	7,463 (5.7)	6,630(-1.8)	7,417(-0.6)	7,080 (6.8)
부동산업	2,954 (3.7)	3,086 (4.5)	3,106 (5.7)	3,140 (6.8)	3,110 (0.1)	3,119(-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4.8)	5,376 (5.3)	5,336 (6.6)	5,776 (4.5)	5,341 (0.1)	5,369(-7.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 (3.4)	2,584 (3.7)	2,565 (4.0)	2,582 (3.8)	2,651 (3.3)	2,669 (3.4)
교육서비스업	3,355(-0.3)	3,435 (2.4)	3,470 (2.0)	3,661 (3.3)	3,545 (2.1)	3,732 (2.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 (2.5)	3,122 (3.6)	3,096 (3.9)	3,125 (3.9)	3,099 (0.1)	3,122(-0.1)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 (4.2)	3,077 (2.8)	3,034 (2.4)	3,133(-0.6)	3,055 (0.7)	3,141 (0.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 (5.4)	2,832 (4.9)	2,808 (5.1)	2,927 (7.1)	2,960 (5.4)	2,976 (1.7)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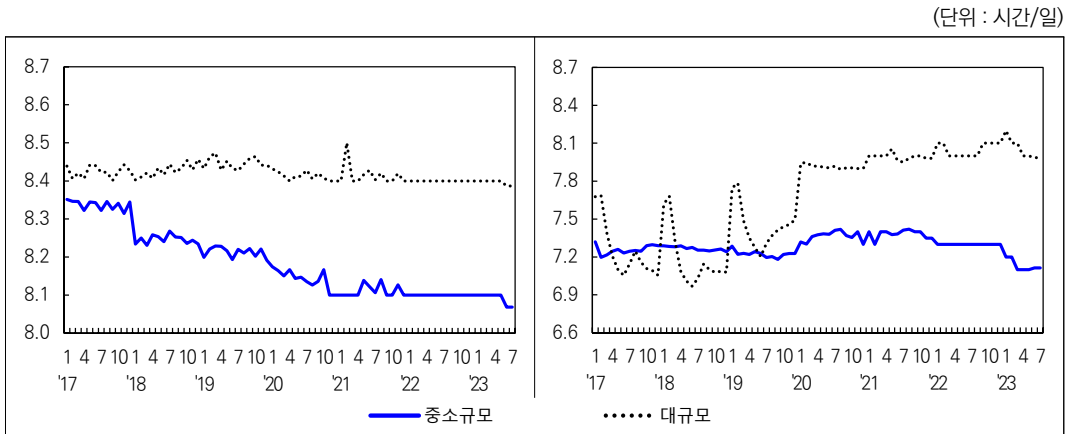
◆ 2023년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과 동일)

○ 2023년 7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3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과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임.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7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57.8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3.3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는 16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함.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감소폭이 컸던 것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7월	7월	1~7월	7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0.1)	158.3(-1.2)	157.0(-2.2)	161.1(-4.0)	156.3(-0.4)	157.8(-2.0)
	상용 총근로시간	167.8(0.1)	165.9(-1.1)	164.2(-2.1)	168.9(-4.0)	164.9(0.4)	166.7(-1.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0.2)	158.2(-1.2)	156.5(-2.3)	161.4(-4.2)	157.7(0.8)	159.5(-1.2)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0.0)	7.7(0.0)	7.5(0.0)	7.2(-6.5)	7.2(-4.0)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1.4)	96.4(-1.0)	96.5(-0.6)	97.8(-1.4)	88.3(-8.5)	88.5(-9.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59.0(-2.9)	164.6(-3.7)	161.5(1.6)	164.2(-0.2)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60.2(-2.7)	165.8(-3.7)	163.2(1.9)	166.0(0.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49.2(-3.0)	155.2(-3.9)	152.1(1.9)	155.0(-0.1)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1.8)	11.0(-0.9)	11.0(0.9)	10.7(0.9)	11.1(0.9)	11.0(2.8)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2.2)	125.0(-2.3)	124.3(-3.5)	130.4(-4.1)	117.6(-5.4)	118.6(-9.0)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7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에서 크게 감소

○ 2023년 7월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광업(-6.2%), 숙박 및 음식점업(-5.7%), 건설업(-4.9%)임.

-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은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소폭 상승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160.7(0.1)	158.7(-1.2)	157.3(-2.3)	161.7(-3.9)	157.2(-0.1)	158.9(-1.7)
광업	179.9(-0.7)	174.8(-2.8)	174.1(-4.0)	180.0(-2.2)	168.7(-3.1)	168.8(-6.2)
제조업	173.5(0.5)	171.1(-1.4)	170.0(-2.7)	174.5(-4.2)	171.9(1.1)	173.1(-0.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8.3(-2.8)	166.9(-2.1)	160.7(1.5)	162.6(-2.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0.2)	174.4(-1.4)	173.6(-1.8)	176.6(-4.2)	170.8(-1.6)	173.5(-1.8)
건설업	135.9(-0.7)	134.3(-1.2)	133.6(-1.6)	136.5(-2.8)	129.4(-3.1)	129.8(-4.9)
도매 및 소매업	163.8(0.0)	162.3(-0.9)	160.8(-2.0)	164.9(-3.8)	160.2(-0.4)	161.8(-1.9)
운수 및 창고업	160.2(0.8)	160.6(0.2)	158.6(-0.9)	163.2(-2.6)	161.0(1.5)	163.8(0.4)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45.1(-1.4)	149.8(-2.8)	139.1(-4.1)	141.2(-5.7)
정보통신업	164.1(0.2)	162.7(-0.9)	161.0(-2.1)	166.2(-4.0)	163.0(1.2)	166.2(0.0)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57.8(-3.1)	162.7(-4.7)	161.0(2.0)	163.2(0.3)
부동산업	171.8(-0.8)	169.4(-1.4)	167.6(-2.4)	172.5(-3.4)	168.0(0.2)	169.7(-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58.7(-2.3)	164.0(-3.9)	160.0(0.8)	162.9(-0.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0.2)	159.8(-1.4)	158.4(-2.5)	162.2(-4.2)	158.7(0.2)	160.8(-0.9)
교육서비스업	137.2(0.4)	136.1(-0.8)	134.3(-2.0)	139.3(-3.9)	136.4(1.6)	136.4(-2.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53.8(-2.7)	158.0(-4.6)	151.5(-1.5)	153.8(-2.7)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2.0)	150.8(-1.2)	149.4(-1.8)	153.1(-5.4)	149.4(0.0)	150.7(-1.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1.3)	160.3(-1.3)	158.8(-2.1)	162.9(-4.3)	161.2(1.5)	164.0(0.7)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7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3.5시간)이고, 다음으로 제조업(173.1시간), 부동산업(169.7시간) 순인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9.8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7건
 - －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1건)보다 14건 적은 수치임.

- 2023년 9월 조정성립률 33.3%
 - － 9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0%보다 33.3%p 높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9	7	13	4	1	3	8	2	6	0	1	5	33.3%
2022. 9	21	16	0	0	0	14	0	14	0	2	2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9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 보다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3건임.

〈표 2〉 2021년, 2023년 9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9	0	3	2	0	1	1
2022. 9	1	2	1	0	1	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00건
 - 9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57건)보다 43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4.9%(5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1%(157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9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9	200	209	46	6	118	2	20	17	558
2022. 9	157	213	50	6	116	4	20	17	46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0건
 - 9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6건)보다 6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5.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0%(3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3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9	0	4	1	0	3	0	0	0	5
2022. 9	6	9	2	1	12	1	-7	0	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사용자 책임 물어야, 노조법 개정 동의”

- 9월 17일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직장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직장인 71.9%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음.
-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20.6%)의 두 배를 웃돌았음.
- 직장인 10명 중 6명(59.6%)은 정부가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음. 10명 중 8명(79%)은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음.
- 조사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음.

◆ 경남 조선 하청 노사, 상여금 50% 연내 지급 합의

- 9월 14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개 업체와 진행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노사는 2016년부터 대대적으로 삭감된 상여금 일부를 회복해 연내에 지급하기로 했음.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소 원청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다며 2016년부터 하청노동자 상여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했음.
-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연내에 상여금 50%를 지급하고 명절 휴가비도 부활시키기로 했음.

◆ 현대차 노사 임단협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 9월 18일 현대차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 4,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 8,603명(투표율 86.47%) 중 2만 2,703명(58.81%)이 찬성했다고 밝혔음.
- 잠정합의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 성과급 300%+800만 원, 격려금 100%+25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 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고 있음.
- 노사는 또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추가 채용과 출산·육아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 소품종 고급 차량 생산공장 건설 추진 등에도 합의했음.

◆ 금융 노사 ‘임금인상 2.0%’ 산별교섭 합의

- 9월 26일 금융노조는 2023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금융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2.0%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을 이보다 높게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
- 청년 채용 등 적정 인원을 배치해 고객 불편 감소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하고, 사내 복지기금을 파견·도급 노동자를 위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음.
- 콜센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회사 경영 과정에서 직원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고려하는 ESG 경영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음.
-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연간 90일 한도 내에서 시행하기로 신설했고, 고객의 폭언·폭행이 있을 때는 업무증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아모레퍼시픽에 새 노동조합 출범

- 9월 11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가 노조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지난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팀장들을 팀원으로 대거 강등시켜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올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16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관뒀다”며 “기존 노동조합(아모레퍼시픽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이러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조합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직원들의 분노와 실망을 자아냈다”고 했음.
-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는 AP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회사의 올바른 성장과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 화섬식품노조에는 파리바게뜨, 해태제과, 한국하겐다즈 등 식품업종 및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의 IT·게임업종 노동자들과 제약, 폐기물 등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으며, 동종업계인 LG생활건강사무지회도 작년에 합류해 화장품 업계에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 전남도,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의무화

- 9월 18일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도교육감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조례에 따라 급식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지원을 받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음.
-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노동자에게는 교육청이 추가 검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 공공사회지출, GDP의 14% ‘OECD 하위권’

- 9월 17일 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했음.
-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공공사회지출(SOCX) 규모는 GDP 대비 14.8%임. 이 지표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포인트 낮았음.
- 프랑스(31.6%), 독일(26.7%), 스웨덴(23.7%), 미국(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액을 보면 2022년 217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의 35.8%였음.
- 2019년 161조 원(국가 지출의 34.3%), 2020년 180조 5,000억 원(35.2%), 2021년 199조 7,000억 원(35.8%) 등 매년 증가세임.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여성 절반 “부당 대우”

- 9월 14일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수진·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었음.
- 직장갑질119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받은 직장 내 젠더폭력 제보 59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유형별(중복집계)로 보면 ‘성차별적 괴롭힘’이 328건(55.1%), ‘직장 내 성희롱’이 322건(54.1%), ‘직장 내 괴롭힘’이 381건(65.1%)으로 나타났음.
- 신고자의 54.2%는 신고 후 조사 등 ‘조치의무 위반’을 경험했고, 58.8%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겪었음.
- 이수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신고 사건 449건 중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은 7.8%(35건)뿐이었음.

◆ 20~40대 직업가치 1순위는 ‘일과 삶의 균형’

- 9월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음.
-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4.23), ‘직업안정’(4.09), ‘경제적 보상’(4.07) 순으로 나타났음.
- 20대 이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1순위, ‘경제적 보상’이 2순위였음. 30~40대는 ‘일과 삶의 균형’이 1순위인 것은 같지만 2순위가 ‘직업안정’으로 높게 나타났음.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이 1순위에 오르고 ‘일과 삶의 균형’은 2순위로 밀려났음.
- 청소년과 대학생은 직업가치별 점수차이가 있긴 했지만 우선순위는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직업안정’ 순으로 동일했음.
- 성인(대학생 제외)은 ‘일과 삶의 균형’(4.14), ‘직업안정’(4.06), ‘경제적 보상’(3.98) 순으로 나타났음.
- 직업가치관검사 표준화조사에는 만 15~50세 학생·성인 5,786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했음.

〈표 5〉 연령대별 직업가치관검사 분석결과

		사회적 공헌	변화 지향	성취	경제적 보상	자기 계발	일과삶의 균형	사회적 인정	자율성	직업 안정
환산 점수	10대	3.48	3.35	4.00	4.22	4.02	4.35	3.63	3.54	4.16
	20대	3.30	3.24	3.86	4.05	3.92	4.26	3.49	3.49	4.01
	30대	3.22	3.21	3.73	3.93	3.77	4.14	3.39	3.55	3.95
	40대	3.46	3.37	3.88	3.99	3.86	4.11	3.50	3.69	4.05
	50대	3.57	3.47	3.97	4.05	3.95	4.14	3.57	3.79	4.20
	60대 이상	3.73	3.56	4.05	3.94	4.03	4.09	3.67	3.85	4.2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직장인 81% “노동시간, 주 48~52시간이 적절”

- 9월 21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를 발표하였음.
- 정부가 제도를 개편해 ‘1주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새로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46.7%가 ‘주 48시간’이라고 답했음.
- 현재와 같은 ‘주 52시간’이라는 응답은 34.5%였고, ‘주 60시간’이 6.8%, ‘주 56시간’은 6.2%로 낮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인 ‘주 69시간’은 2.3%에 그쳤음.
- 직장갑질119 설문 결과 응답자 46.2%가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법정 노동시간

- 을 넘겨 '초과노동이 1주에 12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12.1%에 달했음.
- 초과노동을 하는 이들 중 55.2%는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일부만 주거나 정해진 한도액만 주고 있다)'고 답했음.
 - '초과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2.7%, '초과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 실경비만 주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났음.

◆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인식, 20대가 가장 많아

-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중 20대에서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 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3.2%(매우 그렇다 10.7%, 그렇다 22.5%)였음. '보통이다' 46.2%, '아니다' 20.6%(아니다 13.7%, 전혀 아니다 6.9%)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36.8%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음. 이어 40대(35.7%), 30대(34.1%), 50대(32.5%) 등의 순이었음.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7.2%)이 중소기업(33.4%)에 비해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근로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37.1%)이 비정규직(30.2%)에 비해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호봉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중에서는 '담당한 업무에 대한 성과 및 결과'(52.8%)를 통해 임금이 결정돼야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어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 등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23.5%), '개인의 자격 또는 역량 수준'(23.0%) 등의 순이었음.
- 임금, 복지 등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2개 복수응답)로는 '원·하청 관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가, 대금 지급 등)'이 51.3%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음.
- 이어 '원청-협력업체 노사 간 상호 연대·협력 노력'(36.1%),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해소'(33.4%) 등의 순이었음.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정부터 단계적 확대'가 55.1%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지'(17.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전면 적용'(17.5%) 등의 순이었음.
-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랩이 경사노위 의뢰로 지난 6월 1~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진행한 것임.

◆ 고립·은둔청년 52만 명 육박

- 9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청년층을 지원하는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도 일부 공개했음.
- 취업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고립·은둔청년’이 약 51만 6,000명으로 추산되고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9~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
- 고립·은둔청년으로 분류된 응답자의 18.5%는 정신과 약물을 먹고 있었음.
- 신체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은 43.2%(매우 나쁘다 10.7%)로 일반청년(14.2%)의 3배 이상이었음. ‘우울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57.6%(심한 우울 18.3%)로 일반청년(27.5%)의 2배를 넘었음.
- 응답한 고립·은둔청년 중 55.7%는 ‘탈고립’을 희망했음.
- 고립청년은 사회적 관계·지지가 단절된 청년, 이 중 집이나 방 등 한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은둔청년으로 정의함.

◆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 70% “숨방망이 처벌이 주원인”

- 9월 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 결과 직장인 43.7%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 임금체불 경험은 비정규직(49%),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10%가량 높았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8,232억 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가량 증가했음.
-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 437명에게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퇴사(22.4%)하거나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음.
-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해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임금액이 적어서’(15.3%), ‘시간이 없어서’(8.8%) 등의 순이었음.
- 한국사회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자, ‘심각하다’는 응답이 66%로 ‘심각하지 않다’(34%)는 응답의 2배에 달했음.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라는 응답(23.6%)의 3배였음.
-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응답이 가장 많았고,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 등이 뒤를 이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